지역 소통의 종로 복지관 10주년 맞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개최

실버 복지·일자리 창출 힘써온 10년
신설공간 활용해 지역주민 소통↑


실버 복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관내 마루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실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종로구 노인복지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해온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28일 관내 4층 종로마루홀에서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송년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10년간 인연을 이어온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및 회원 20여 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참가자 전원과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람하며 문화공연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사 산림원장 남전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2007년 개관부터 관장 소임을 맡아온 정관 스님은 "개관 당시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신노인문화 중심 1번지'로 노인이 주체적이고 생산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1만여 명에 육박한 회원을 유치했다. 그 역사를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10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전했다.

정관 스님은 그동안 복지관을 운영하며 힘든 일보다는 감동을 느낀 사례가 더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노년기에 접어들어 무위에 있던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복지관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 평생을 가정주부의 삶을 살다 복지관의 감성문화대학 미디어학과 이수를 통해 미디어 촬영·편집 등을 배운 후 서울노인영화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어르신, 매일 아침 플러스카페로 출퇴근하며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어르신,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 무대 위에서 연극인으로 새로운 자아를 찾은 어르신 등 한계가 없는 노인들의 역량 발현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 2월에 개관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문화 중심 1번지'라는 모토로 힘써왔으며 올해 회원 1만을 달성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그동안 실버 바리스타, 장금이 등을 배출하며 어르신 재교육을 통한 실버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다. 현재 실버 바리스타를 위한 플러스카페는 종로구청, 마로니에 공원에 이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3호점까지 확대됐다. 올해 8월 증축이 완공되면서 장체험관, 장카페, 옥상장독대 장마당 등이 확충돼 어르신들이 만든 장도 직접 판매한다.

이와 관련해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 재교육, 일자리 창출에 큰 일을 해주고 있다.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나 목욕탕, 장 카페 같은 복지관만의 특화시설이 종로를 빛내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별★별 한옥도서관' 지역주민 도서대여, 강당 및 세미나실 등 시설 대관, 투표소 지정(무악센터) 등을 통해 열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설된 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개방 강좌, 지역연극인 공연장 대관 및 콜라보 공연, 지역주민 대상 장醬체험 프로그램 등이 예정돼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개방 사업운영으로 복지영역을 확대해 열린 복지관으로서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박진형 기자

고령화 시대, 서울형MC로 '실버산업' 선점하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⑧ '100세동안 사당점' 이호숙 대표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노령 인구 비율이 7%에 이르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도 급격히 연장되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노인 인구 급증에 발맞춰 노년층을 수요자로 하는 실버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실버산업은 노년층을 소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이 가운데 이호숙 '100세동안 사당점' 대표〈사진〉가 발빠르게 실버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MC)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서울형MC를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시 제약회사를 다니던 남편의 일을 도우며 노인 복지와 고령화 사회에 관심을 갖게 돼 서울형MC를 통해 경영개선 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업주부였지만 노인 복지사업이 커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2008년 처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서울형MC를 알게 돼 남편의 권유로 신청하게 됐다.

대출받은 금액은 성인용 기저귀와 노인 복지 용구 등 물품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 제품이 다양화되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고객들은 만족했다. 현재 이 대표는 연 3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서울형MC를 남편에게도 추천했다. 제약회사를 다니던 남편 이준오 씨는 함께 실버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 서울형MC에서 창업자금 7,000만원을 대출받아 동작구에 노인의료용품점 '성풍헬스케어'를 창업했다.

"서울형MC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추천할 수 있었어요. 서울형MC는 이율도 저렴하고, 우리 같은 개인 자영업자에게 맞게끔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인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불자로서 대출단체가 조계종이라는데 신뢰가 더 가기도 했어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힘든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데 한 번에 목돈 갚기 힘들어서 다른 대출은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분할상환이라 큰 부담이 없는 서울형MC를 추천하고 싶어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조계사 10만 8000염주, 삼존불에 안장한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성역화 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해 신심 결집에 나섰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2월 20일 삼존불 중 아미타불 복장에 안장될 10만 8000염주 성만·복장식을 개최한다. 이번 복장식은 삼존불 중 석가모니불과 약사여래불 복장에 이은 마무리 불사로 진행된다. 조계사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 성취를 위해 2015년부터 복장 불사를 진행해왔다.

조계사는 이번 복장불사 회향을 기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정진기간으로 선포하고, 각 신도회, 수행본부 등 전체 대중이 참여하는 수행한마당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조계사 측은 "조계사는 한국불교 신행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대웅전 삼존불"이라며 "많은 이들이 참배하는 삼존불 복장에 직접 기도하며 한알한알 꿴 염주를 복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승가원, 성북구에 장애아동 보금자리 '첫 삽'

'승가원 희망행복마을' 건립 착공식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행, 이하 승가원)은 11월 22일 성북구 안암동5가 승가원희망행복마을 건립부지에서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의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장애아동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건립에 첫 삽을 떴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행, 이하 승가원)은 11월 22일 성북구 안암동5가 승가원희망행복마을 건립부지에서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의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승가원 이사장 원행 스님을 비롯, 승가원 이사회, 각 산하기관장, 건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승가원은 장애아동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목표로 2009년부터 '승가원 희망행복마을 건립계획'을 수립, 진행해왔다.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은 4,560㎡ 규모로 생활실, 세탁실, 식당 등 생활공간과 음악활동실, 수치료실, 미술치료실과 같은 치료 공간 등이 마련된다. 여기에 영화관, 카페 등의 시설도 착공 예정이어서 장애아동의 자립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승가원 이사장 원행 스님은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의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응원해준 후원가족의 꾸준한 염원과 나눔에 감사하다. 근무가족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희망행복마을'은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